

축복받는 사람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5:1-12] 그분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산상 수훈의 이 구절들은 축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을 묘사합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계명들로서 ‘하라’는 계명과 ‘하지말라’는 계명들을 포함합니다. 위의 8 가지 축복받는 백성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추가하여 사람들의 심성과 생활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명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의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들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심령과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도우시는 개인 교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니다. 오늘 그 여덟가지 속성을 공부함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3 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 빈곤은 천국 가는데 조건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빈곤함을 깨닫고 그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질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그의 종들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천국의 영적 자산을 풍부하게 내려 주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풍족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또는 친족의 죽음에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된 상태, 즉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축복의 밖에 살면서 잘못된 목소리를 따라서 살면서 광야같이 빈곤하고 매마른 인생을 살아왔던 상태에 대하여

애통하였습니까? 이러한 광야를 떠나 이제 주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비와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는 애통을 통하여 여러분은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을 그분의 품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 후에 얻게될 참된 영혼의 위로와 안식,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5 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의 희랍어 의미는 “억제된 능력”입니다. 즉, 온유함을 연약함이나 힘이 센 사람 앞에서 굴종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신의 분노와 권능을 자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온갖 행악들을 잘 보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참으시고, 대신에 아직도 자비와 은혜의 기회를 불신자들과 행악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일상에서 나타내는 ‘온유한’ 백성은 천년 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계를 통치할 것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로운 지구로 재생하실 때에는 ‘새 땅’의 주인이 되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6 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온갖 행악들을 보고 접하면서도 “원래 세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치부하면서 자기 살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갈급함, 배고픔을 충족시킬 천국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 팔팔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이 심어져서 여러분의 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풍요로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샘물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7 절에는 “*공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휼을 얻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공휼을 베푸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자비와 공휼을 베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서 남들에게도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모두 용서받은 백성들로서 그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드리는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8 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2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되신 그분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즉 거짓 동기가 없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분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이런 혼들이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에 구원 받은 백성들과 함께 그분을 직접 보고

경배 찬송을 올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으로 그분을 보고, 하늘에 가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 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화평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를 속량할 대속물이 되신 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화평은 죄인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도 얻게 되는 커다란 은사이므로 이런 은사를 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과 화평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과 가능한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불행히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다른 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 분쟁과 전쟁을 초래하는 일이 많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사악한 사람들로 부터 차별과 배척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그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악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악한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이러한 핍박을 당함에 억울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뻐합니다. 이 구절은 그런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큰 상을 생각하면 세상 살면서 받는 오해와 배척과 핍박은 기쁜 마음으로 견딜만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언행과 심령을 어떻게 가져야 주 예수님의 표징을 지닐 수 있는지 저희를 매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여러분의 물질적 도움에 감사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110-008-655930 [조덕운]